

# 하늘. 사랑

July 2020  
vol. 469

7

cover story

쌍무지개

2015 기상기후사진전 <장려> 김택수



# 하늘· 사랑

vol. 469

7  
July 202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0년 7월 5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이은정  
편집기획 오철규 남궁지연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cover story

쌍무지개

비온 뒤 환해진 하늘에  
두개의 미소가 웃음이 떠있네요.  
여름도 같이 무르익어 갑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포커스 뉴스

02

‘제2 해양기상기지’ 구축으로  
수도권 위험기상 미리 탐지한다

04

야외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폭염  
‘물, 그늘, 휴식’ 기억하세요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t.or.kr](http://www.kogt.or.kr)





## Weathe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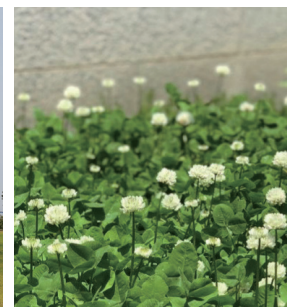
- 06 테이아와 계절
- 08 여름에는 폭풍 성장
- 10 구름에 대하여
- 12 모두가 바라는 것
- 14 태풍고백(颱風告白)

## Theme Story

- 16 기상교육의 미래를 그리다
- 18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온 소형기상레이더
- 20 이번 여름엔 무슨 옷을 입지?
- 22 116년 역사 인천기상대, 나의 기록을 더하다

##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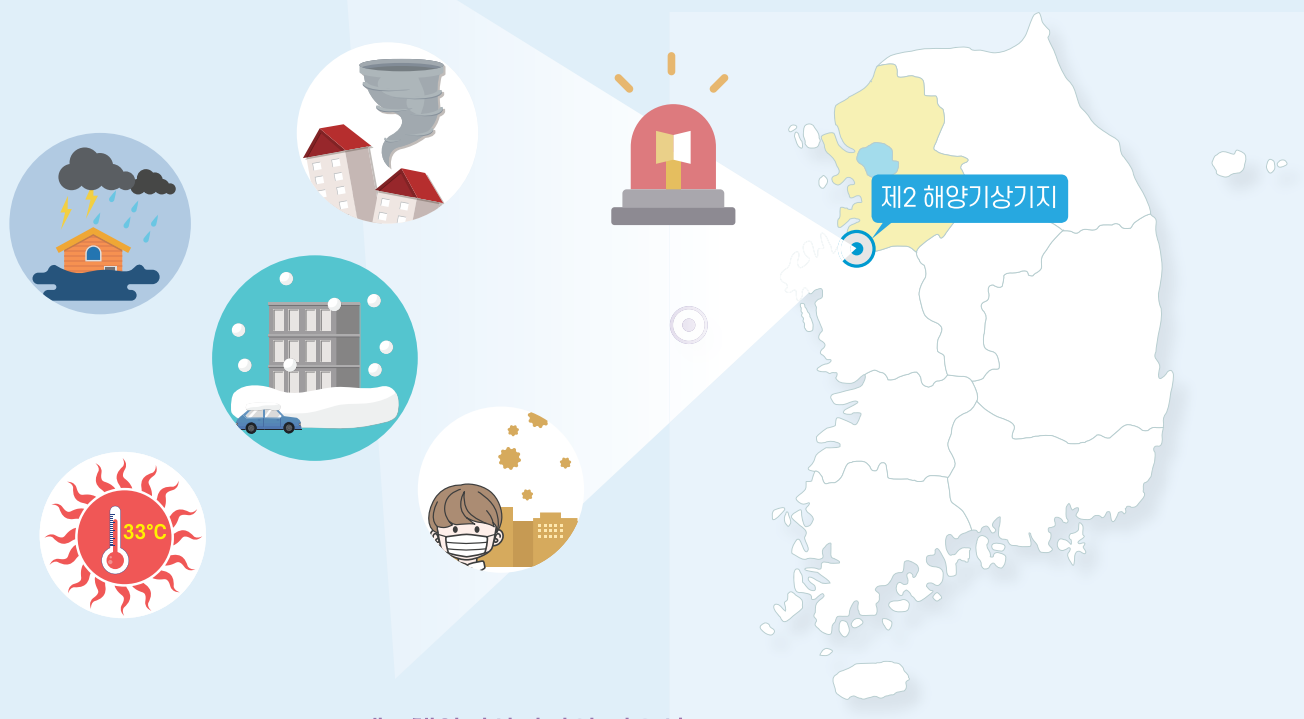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6 오늘, 당신의 날씨
- 28 Platform



## ‘제2 해양기상기지’ 구축으로 수도권 위험기상 미리 탐지한다

관측기반국

2020년 6월, 서해 덕적도에 새로운 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충청도 중심의 중부지방 위험기상을 미리 알려주는 제1 해양기상기지과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위험기상을 미리 알려주는 눈이 될 ‘제2 해양기상기지’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제2 해양기상기지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 집중호우, 대설, 태풍 등과 같은 위험기상 발생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기온은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2019년에는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수인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집중호우는 1970년대에 15번 발생했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100번이 넘게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극심한 위험기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현상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상청은 정확하고 신속한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의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위험기상을 조기 탐지하려 한다. 이미 기상청은 2005년에 충남 태안 북격렬비도에 제1 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대설, 황사 등의 위험기상 예측 선행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다. 기상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위험기상에 대비하고자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 제2 해양기상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 왜 덕적도여야만 할까?

덕적도는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83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단순히 거리와 위치 면에서 이곳이 선정된 것은 아니다. 제2 해양기상기지 부지 선정에 위한 치열한 후보 다툼이 있었다. 해양기지 구축의 기본 방향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집중호우나 대설 등의 위험기상을 조기에 감시하는 것으로 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경기만 도서 지역인 덕적도였다. 또한, 기존 북극열비도와 해양수산부 소청초 해양기지 등 기존 관측망과의 공간 분포를 고려하여 관측이 중복되지 않는 곳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덕적도는 전력이나 통신 물자수송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으며, 특히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덕적도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섬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안정된 전원 공급을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구축하여 전원시스템을 이중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섬인 덕적도에 구축될 해양기상기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 위험기상을 조기 감시를 위한 제2의 눈

덕적도 제2 해양기상기지는 6월에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21년도에 기상관측장비를 도입하여 2022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장비로는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 황사관측장비, 지상기상관측장비 등 지상·고층장비가 구축되고, 구축 완료 후에는 먼바다 해상에 기상요소와 해양요소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해양기상부이 등 해양기상 관측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특히 제2 해양기상기지에는 제1 기지에 설치되지 않은 고층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대기 상층의 관측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는 수치예보모델 예측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에서부터 서해를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다양한 위험기상 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지 구축 후에는 서울과 수도권 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선행시간 확대를 통해 서해 해상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야외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폭염 ‘물, 그늘, 휴식’ 기억하세요

안전보건공단



## 야외작업자의 온열질환 위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평균기온과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0.4℃ 상승했으며, 폭염일수도 3.7일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열사병 등에 의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2015년에 1명이었던 것이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주로 14~16시 사이, 건설업, 임업 등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에서 발생했다. 야외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폭염은 2018년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재해) 범주로 관리되고 있다.

다음은 업종별 온열질환이 발생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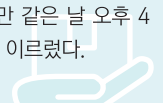
### 건설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첫 출근을 한 A씨는 오후 1시 40분경 옥상층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한참을 작업에 몰두하던 A씨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다. 옆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B씨가 이를 발견, A씨의 이마에 손을 얹으니 뜨거웠다. 일단 급한 마음에 A씨에게 얼음물을 뿌린 뒤 B씨는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 운수업

7월 어느 날 오후 3시 20분경 A씨는 ‘○○이삿집센터’ 내 1층 창고 앞에서 자재정리를 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입에 거품을 물고 누워있는 A씨를 발견한 동료 B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 사망에 이르렀다.



### 서비스업

햇살이 뜨겁던 7월의 한낮, A씨는 ○○로에서 인도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늘 하나 없는 야외에서 A씨는 햇볕을 피하지도 못한 채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A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다 졸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동료 B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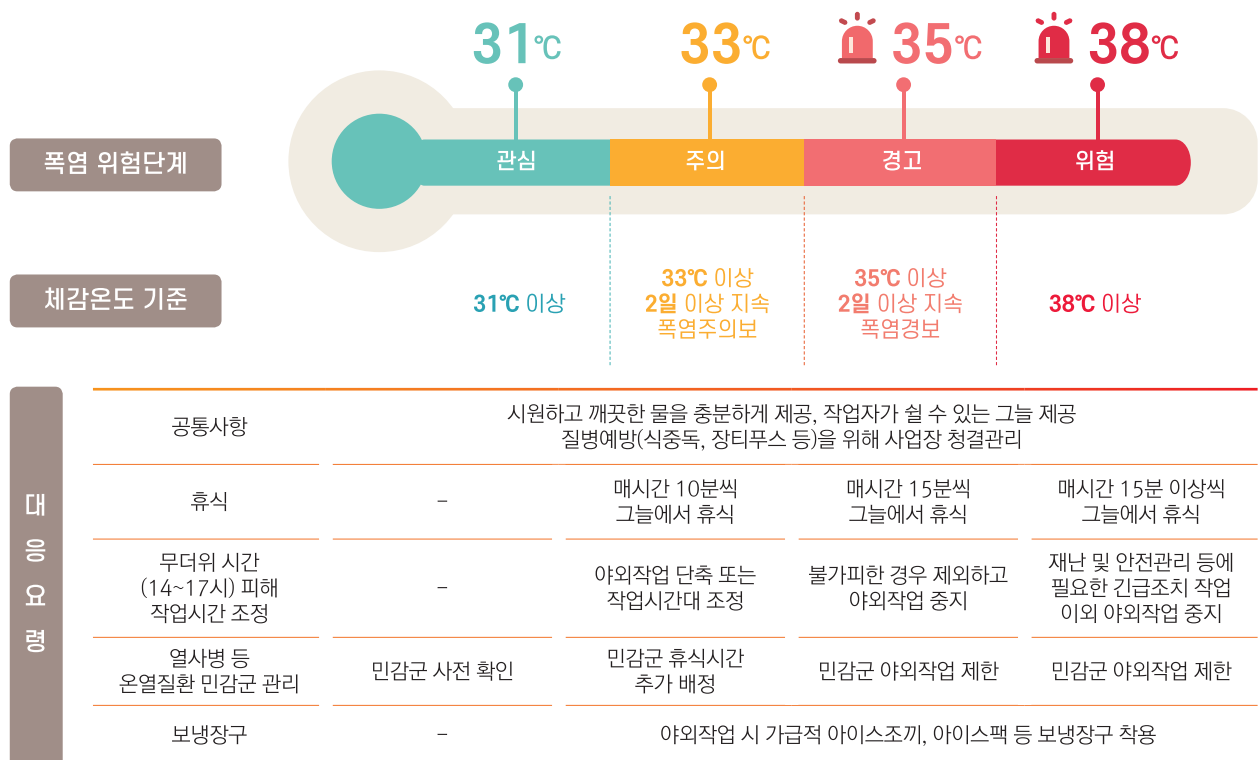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물, 그늘, 휴식’의 3대 기본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여름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야외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시간당 10~15분씩 그늘 밑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배정한다. 무더위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9~18시 작업시간을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5~14시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폭염 시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폭염 위험단계에 따른 대응요령도 다르다.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최고기온에서 일최고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폭염 시 체감온도에 따른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이렇게!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무더운 날씨에도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야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거나 취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방송, 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폭염예방 포스터, 스티커 등을 소규모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배포하고, 폭염예방수칙 현수막 디자인은 온라인을 통해 보급한다. 관련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할 수 있다.



# 테이아와 계절

이 정 모 국립과천과학관장

아무리 봐도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다. 태양계의 사진만 봐도 지구만큼 아름다운 행성은 없다. 다른 행성 사진들은 지루하지만, 지구는 파란색과 흰색이 적당히 섞여 있는 모습이다. 내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외계인이라면 적어도 지구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며칠 쉬어가고 싶을 것 같다.

우주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외계인이라면 지구 문명 따위에 크게 감명받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열대 우림 도시나 사막 도시를 여행하는 느낌 정도일 것이다. 외계인이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길 요소는 뭘까? 여행자는 자기가 사는 곳과 다른 장소에 흥미를 느낀다. 외계인이 지구에서 가장 놀랄 만한 요소는 아마 계절일 것이다.

지적 생명체가 살기에 지구 정도의 중력이 적당할 테니 외계인의 행성 크기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여행수단이라면 지구 정도는 한두 시간에 둘러볼 수 있을 거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네 계절을 모두 경험한다. 처음에는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잠깐 계산해보면 중위도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1년 안에 네 계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아니, 계절이 뭐 대단하다고 외계인이 놀랄까? 그들의 행성에는 계절 따위는 없을 까? 아마도 그들은 계절을 모를 것이다. 이게 쉽게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성은 모두 별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행성의 자전축은 보통 공전면과 수직 또는 수평이다. 이런 행성에는 계절이 없다. 1년 내내 별빛을 일정하게 받기 때문이다(여기서 별빛이란 우리가 햇빛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지구는 자전축이 똑바르지 않다. 공전궤도와 23.4도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기 때문에 계절이 생긴다. 그래서 때로는 남반구가 태양을 조금 더 바라보고, 때로는 북반구가 태양을 더 바라보게 된다. 북반구가 태양을 조금 더 바라볼 때는 낮의 길이가 길고 기온도 높다. 랜턴을 위에서 똑바로 비출 때와 비스듬히 비출 때 빛의 세기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배운다.

그런데 궁금하다. 왜 지구 자전축은 비스듬해서 외계인으로 하여금 계절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걸까? 순전히 우연이다. 이야기는 45억 1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양계에는 ‘이아’와 ‘테이아’라는 행성이 있었다. 두 행성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전궤도 위에서 태양을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 안에 중력 평형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테이아가 지구 궤도를 침범하더니 이아와 충돌했다. 만약에 정면충돌했다면 이아와 테이아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서 금성과 화성 사이에 소행성대를 이뤘을 테지만, 다행히 정면충돌은 아니었다. 테이아는 이아와 비스듬하게 부딪혔다. 아무리 비스듬하게 충돌했다 해도 화성만 한 크기의 테이아가 부딪혔는데 충격이 없을 리 없다.

테이아가 이아에 처박혔을 때 테이아만큼의 파편이 이아 반대편에서 튀어나갔다. 파편들은 마치 토성의 띠처럼 이아 주변을 둘러쌌다. 띠처럼 둘러있던 파편들은 중력의 영향으로 점차 뭉쳐서 하나의 천체가 되었다. 테이아와 합쳐진 이아가 지금의 지구가 되고 이아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은 달이 된 것이다. 달은 조금씩 멀어져서 지금의 위치까지 갔다.

또 충돌의 충격으로 이아의 자전축이 기울었다. 만약에 테이아가 이아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또는 정면충돌했다면 지구에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를 지나치는 외계인들은 파란 바다와 하얀 구름이 어우러진 풍경을 구경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는 탄생하지 못했다. 지구가 아름다운 까닭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름답다고 말해주니까 아름다운 것이다.

지구의 계절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지구 자전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말이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산업화 이후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만들지 못한다면, 지구 여행을 꿈꾸는 외계인들도 사라질 것이다. 테이아의 절묘한 충돌이 만든 계절을 이산화탄소 따위가 망치도록 놔둘 수는 없다!



# 여름에는 폭풍 성장

황 다 은 드라마작가



## 여름

계절은 자연이 쓰는 스토리텔링이다. 봄은 새로운 사건과 마주친다. 여름은 주인공답게 열정적으로 선택과 행동을 이어간다. 가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적으로 깊어진다. 겨울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엔딩점을 찍는다. 봄을 만나 싹을 틔운 주인공은 뜨거운 여름 태양과 쏟아지는 여름 장마를 만난 뒤 폭풍 성장을 해 간다. 가을에 자신의 존재 이유인 열매를 맺고, 생의 비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겨울을 견딘다. 사계절은 다가온 사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한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생의 여정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여름은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이다. 폭염과 폭우에 맞서 갈등하며 주인공 자신이 원하는 성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 폭염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은 무한 긍정과 응원을 떠올리게 한다. <해와 바람>이란 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 성공한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었다. 부정이 아닌 긍정이, 타인의 강제가 아닌 자신의 자발성이 주인공을 움직이게 만든다. 한여름의 태양은 주인공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내리쬐는다. 주인공은 이열치열(以熱治熱), 여름이 동원하는 뜨거운 열기를 자신 안에 내재된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친다. 여름 태양이 주는 무성한 자극이 주인공의 내면에 숨겨진 자원을 발산하게 만든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지나친 더위에 꺾일 때도 있지만, 한계는 곧 새로운 도전임을 배운다. 끝을 모르고 자라 올라가는 한여름 식물들처럼, 치솟는 열정은 주인공의 자격이다. 한여름의 폭염은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만들어 준다. 그 어떤 폭염도 주인공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긴 적이 없다. 여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품은 씨앗들, 생명들. 모두가 주인공이다.



## 폭우

뜨거운 열기가 절정으로 다다를 때, 폭우가 쏟아진다. 폭우는 스토리텔링 구조 안에서 로포인트 (low point)와 맞물린다. 주인공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전력 질주했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 발만 더 디디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허공이다. 절벽이다. 주인공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점이 로포인트다. 폭우, 시련에 모든 것이 잠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점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까스로 얻은 깨달음으로 최후의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 로포인트는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 폭우 때문에 무너지지만, 폭우 덕분에 다시 일어난다. 가랑비는 기껏해야 옷만 적시지만 폭우는 뻗속까지 적신다. 폭우는 대지를 적시고 식물의 뿌리 끝까지 적시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간다. 주인공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어떤 고난에도 시들지 않고 줄기와 잎을 뺏어 나가 저마다의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그늘을 내어준다.

## 폭풍 성장

지나친 것들은 일상의 균형을 깨뜨린다. 지나친 더위, 지나친 비, 지나친 열정이 그렇다. 모든 이야기는 일상의 균형을 깨뜨리는 사건을 만나며 시작되고, 모든 성장은 정해 놓은 선을 넘어서는 고난 끝에 달성된다. 어떤 이야기도 절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한 발자국 앞에 로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좋은 때에서 한발 더 다가갈 때 때문에 로포인트로 떨어진다. 절정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한 발자국 내딛는 지나친 열정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다.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꾸준히 상승 곡선만을 그리지 않듯이, 삶의 여정도 오르락내리락 예측불허 밀당의 연속이다. 우리 삶이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절정이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이다. 여름은 폭풍 성장의 계절이다. 7년간 땅속에 있다가 성체가 되어 한 달간 집중 구애를 하는 매미가 브금(BGM)을 담당해주는 것도 여름 이야기에 참으로 절묘하다. 매미 울음소리가 쏟아지는 여름날, 모두가 성장 중이다.





## 구름에 대하여

손 탠, 『도착 THE ARRIVAL』 (사계절, 2008)

유 희 경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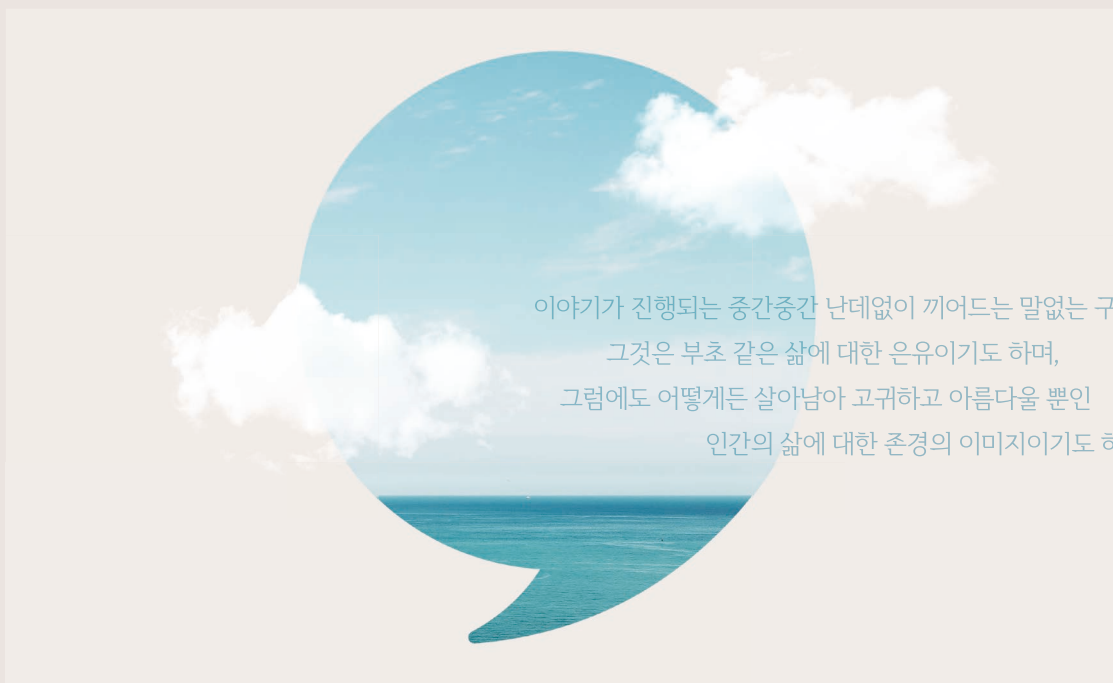


새벽. 남자가 가방 안에 짐을 챙겨 넣고 있다. 가방은 작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짐들은 단출해 보이나, 그는 멀리 떠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쓸쓸한 표정일 리 없다. 그가 마지막으로 꼼꼼 여미는 것은 가족사진이다. 그의 가방을 그의 아내가 애뜻한 손길로 어루만진다. 잠시 잠깐의 침묵. 그 깊은 곳 사이로 예견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아침이다. 가족, 그와 아내 그리고 딸은 잘 차려입고 길을 나선다. 이별의 기운이, 그럴 수밖에 없음에 따라붙는 지독한 슬픔이 그들이 사는 가난한 마을을 감싸고 있다. 그들은 기차역에 도착한다. 이윽고 검은 연기를 토해내며 도착하는 기차. 참았던 눈물이 쏟아진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약이 없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만 간다. 이제 딸과 아내만 남아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것은 그림책이다. 오로지 그림뿐, 어디를 펼쳐도 글은 적혀 있지 않다. 모든 그림은 인화된 지 오래된 사진처럼 누렇게 바랜 색이다. 그래서인지, 그림 하나하나 오래된 시간이 묻어 있다.

이제 남자는 커다란 배의 3등 객실에 있다. 남자 뒤편의 작은 책상에는 가족사진이 놓여 있고 그는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다. 아마 입맛이 없을 테지만, 약해져서는 안 되므로. 그의 굵은 어깨는 어떤 결의로 단단하다. 이 배가 닿을 낯선 도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점은 배로부터 물러나고 있다. 점점 더 멀리. 이제 보이는 것은 배 위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구름. 그리고 이내 각양각색의 구름 그림이 펼쳐진다. 적운, 층운, 권운. 송이구름, 방사구름, 명주실구름, 무려라 이름을 붙여도 좋을 그런 구름들의 모습. 그것은 마음이었겠다. 닿지 않는 것 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마음. 서툴게 정의 내리자면, 그리움.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호주 그림 작가 손 탠의 그림책 『도착THE ARRIVAL』은 한 이민자의 정착기를 다루고 있다. 지금 “커다란 배의 3등 객실”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남자다. 이것은 말레이시아 출신 이민자인 작가의 부친의 삶이며 동시에 떠밀리듯 다른 곳에 갇들어 살게 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환상과 실재가 뒤섞여가며 펼쳐진다. 아마도 주인공인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딸이 상상하는 풍경일 것이다. 덕분에 자칫 뻔해질 수 있는 디아스포라 형식의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한 구성으로 펼쳐진다. 거기에 오직 검은색만을 이용한 드로잉의 빼어난 표현 방식에는 감탄할밖에.

그러나 정착 나를 사로잡은 것은 구름이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난데없이 끼어드는 말없는 구름. 그것은 부초 같은 삶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며, 그림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고귀하고 아름다울 뿐인 인간의 삶에 대한 존경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나는 이 구름들이야말로 이 책의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잠겨 책을 덮고 서점 바깥쪽으로 난 네 개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구름이 있었다.

구름을 정말 정말로 좋아한다. 마음껏 구름을 볼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나는 그 직업을 갖겠다고 공공연히 떠돌고 다닌 적도 있었다. 여러 권 책을 구매하고 구름과 관련한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좋아한 것은 그저 구름을 보는 일. 그 구름들에 감탄하고 손뼉을 치는 일이라는 것. 그래도 공부를 한 것이 헛된 수고는 아니어서 대충 구름의 정체를 알아챌 때마다 뿌듯하다.

내가 사랑하는 구름은 특별히 간직할 수 있는 존재. 간직은 하지만 소유할 수 없고, 쉽게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것. 누군가에게 일이고 현실인 것이 나에게서는 그저 몽상의 대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인의, 한가로운 서점지기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시적 몽상에 대해 연구한 위대한 과학철학자이자 바슐라르(Gaston Bachelard)가 그랬다. 저 구름을 가리켜 코끼리다, 하면 저 구름은 코를 길게 빼고 코끼리의 울음을 운다고. 과연 그렇다. 지금 내가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구름은 나의 마음이 되어 꼭 그와 같은 모양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구름이 닿는 곳이 보다 근사한 방향이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눈에 마음에도 담기기를.

## 모두가 바라는 것

김 아 영 내일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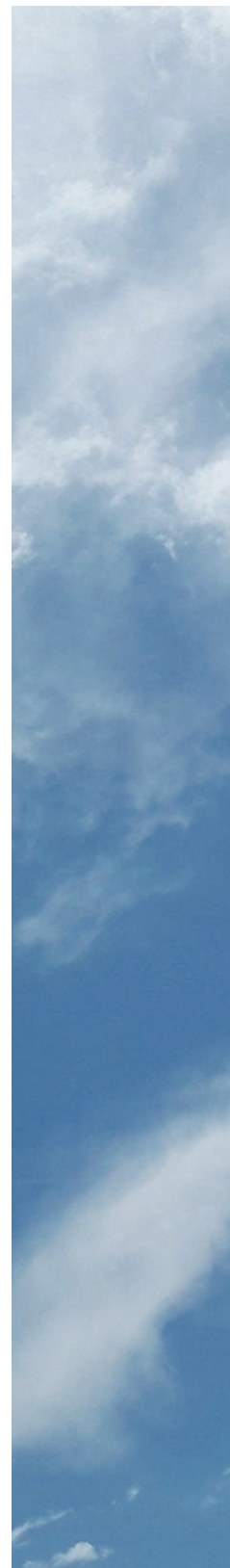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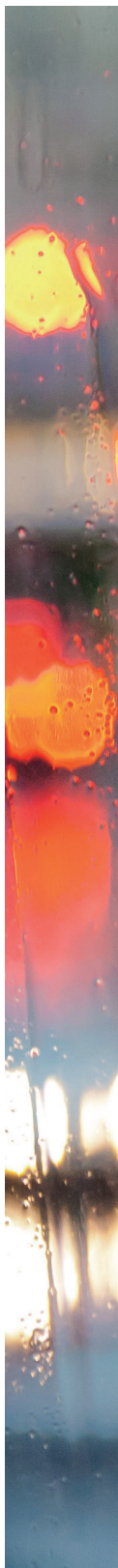
‘비가 오면 개듯이, 곧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힘들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 마주한 존재가 ‘공기’였기 때문일까요. 한지에 물이 스미듯이 우리 삶 속에 날씨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어떤 이에겐 파란 하늘이 쨍할 정도로 맑은 날씨가, 또 어떤 이에겐 축축한 비가 내리는 날씨가 행운일 수 있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바람이 날씨에 투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라는 공통요소 안에는 다채로운 삶의 이야기들이 숨어있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참 날씨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날씨 예보는 챙겨보곤 하니까요. 관심이 높은 만큼 비판도 많을 수밖에요. 예보가 100중 1이 틀리면, 99의 칭찬보다는 1의 불만이 더 크게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인지라 칭찬을 듣는 게 행복하지 잘못했다며 야단치는 목소리가 반갑지는 않을 겁니다.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다.’ ‘슈퍼컴퓨터는 왜 산 거냐.’ 등 늘 나오는 비판들이지만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보관이 몇이나 될까요. 오죽하면 장마철에는 절대 안 먹는 음식 리스트가 있을 정도겠습니까.

꽤 오래전 일이지만 기상청 직원분들과 영국에 함께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영향예보를 도입한 영국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죠. 특정 지역에 비가 올지 등 날씨 현상을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세먼지나 강수,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현장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날씨 예보에 그치지 않고, 고혈압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특정 날씨에 혹은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준비하라 등의 이른바 Si예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영향예보 보급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빠듯한 일정에 취재 아이템은 많았기 때문에 연일 강행군이었습니다. 다들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뒹아떨어졌죠. 그런데도 기상청 직원분들은 꼭 챙겨보는 게 있더군요. 바로 영국 기상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마다 ‘이 지역에는 비가 온다고 예보했는데, 틀렸다, 맞았다.’ 등 날씨 얘기만 하셨습니다. 틀렸을 때는 ‘영국도 별수 없네.’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날씨 예보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영국의 수치예보 모델을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죠.







기상청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곤할 텐데 잠이라도 더 자지.'라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예보 정확도에 대한 중압감이 얼마나 클까?하는 안쓰러움도 함께 생기더군요. 마침 영국 출장 당시 한국 예보가 틀렸다면 엄청 못매를 맞는 시기기도 했습니다. 위로는 안 되겠지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뜻도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씨 영향권 아래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장 생계에 직격탄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님 소소하게 그 날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소중함을 모를 뿐이죠.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날씨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습관처럼 하루의 행운을 빌어 봅니다. 가족의 안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사한테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에 통과하면 좋겠다, 주식 투자한 것이 올랐으면 좋겠다 등 바람은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각기 다른 생각을 품고 각자의 일터로 떠나갑니다. 서로 다른 장소와 역사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날씨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모두의 바람을 싣고 오늘도 예보는 계속됩니다.

# 태풍고백 颱風告白

하나의 눈동자를 가진 외눈박이 바람의 고백  
*Typhoon : Confession of the One-eyed Wind*

김 현 희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태풍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이동하면서 파괴와 순환의 영향력을 다 껴차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다.



## 나는 태풍이로소이다

태풍은 비바람을 품은 거대한 열에너지 덩어리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태풍은 우주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눈동자를 가진 외눈박이 바람’이라는 별칭과 어울린다.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대기와 해수를 순환시켜 생태계를 돌보는 생명력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전 ‘태풍고백’은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지방기상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태풍센터가 후원하였다. 이번 전시는 제주지방기상청에서 보관하던 다양한 기상관측기기와 기상 원부뿐만 아니라 태풍에 대한 옛 기록, 바람을 대하는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생활자료, 태풍에 의해 뜻하지 않게 얻은 보물인 신안선의 도자기, 16세기 태풍 때문에 난파된 하멜 일행의 표류기, 바람과 태풍이 빚어낸 초가와 돌담, 바람의 신에게 바라는 인간의 바람 등 여러 가지 인문학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 바람과 태풍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여러 참여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 바람이 분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붉은 동백꽃의 동무인 검은 돌담처럼 내 안에 품고 있는 들성들성한 바람구멍은 거센 태풍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은 들성한 채로 살아가도 좋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인지 제주 사람들은 바람의 속성을 잘 알고 지붕을 낮추고 돌담과 울레를 만들어 거센 태풍과 비바람을 받아들이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왔다. 제주 사람들에게 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과 태풍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음력 2월에 부는 바람은 풍요를 가져오는 바람이라 믿었다.

이에 제주 사람들은 공물과 기원을 드리며 무사 안녕과 풍작(豐作)·풍어(豐漁)를 기원하였으며 지금까지 영등할매굿처럼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바람은 하얀 화폭 위에서 춤을 춘다.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굴복하지 않는 섬과 그 섬에 담긴 것들을 화폭에 녹여내듯 풀어헤치기도 하였다. 그 화폭이 가능했던 것은 늘 바람을 품고 사는 섬사람의 붓 끝이었기에 더 진해져 제주 몸국처럼 우려진 그림이 되어 나왔다.

##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우리의 애살스러운 기억과 경험들

섬은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풍요의 뿔이다. 바람은 풍요의 뿔을 더듬고 가는 신의 손길이다. 태풍은 바다와 섬을 가로지르는 또 다른 가르침이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조금은 느리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들 한다. 마치 피에르 상소(Pierre Sansot)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처럼 말이다. 그러나 태풍은 느려지면 안 된다. 느려질수록 그 파괴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풍이 마치 ‘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처럼 노래하듯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를 바란다. 바람 타는 섬에 사는 이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애살스러운 단상들은 살아있는 기억의 매개체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다.

늘 잊지 않고 다가오는 태풍은 점점 느려진다고 고백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우리 함께 지구를 돌보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여주자고 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가 필요한 요즘, 세상의 모든 신이 거쳐 가고 바람의 신이 사랑하는 섬, 제주에서 태풍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와 환경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 어쩌다 태풍은 없다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제1호 태풍 '고백'이  
중형급으로 성장하면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태풍 '고백'이 품고 있는 비바람 때문에  
연일 들끓고 있는 우리나라의 폭염을 식혀주고  
미세먼지 농도도 '심각'에서 '보통'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 오늘 집에 일찍 가야겠구나.....'  
.....

이어지는 노래, 들겠습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제주박 라디오 JNM Radio』에서





## 기상교육의 미래를 그린다

윤재호 광주지방기상청

어느덧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기상해설사로 활동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함께한 열정 넘치는 학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간지럽고 낯설기만 하던 ‘선생님’이란 호칭도 이제 어색하지가 않다. 1년여 동안 기상해설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광주지방기상청의 기상교육 현장을 구석구석 소개해본다.

### 지구ON과 터치테이블의 첫 만남

광주지방기상청 기상홍보관에는 지구환경 3차원 가시화 시스템, 일명 ‘지구ON’이 넓은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지구ON은 동그란 구에 지구 모습을 투영한 후, 위성자료나 해류 등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눈앞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 견학생들이 매우 신기해하는 전시물 중 하나다. 이처럼 다양한 기상기후과학 콘텐츠를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호기심을 안겨주는 지구ON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부터, 실시간 적외선영상, 달, 태양, 지진파 등 다양한 테마영상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직접 기상기후과학 퀴즈를 풀어 볼 수 있는 터치테이블도 신규로 도입했다. 퀴즈를 풀면 선물을 주기 때문일까? 터치테이블은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 기상체험관, 즐거운 기상교구재 만들기

기상체험관에서는 기상교구재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실생활에 응용해보는 체험을 진행한다. 기상교구재 만들기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견학 프로그램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조립하면서 완성하려는 모습이 매우 기특하다. 특히, ‘풍향풍속계 만들기’는 나침반, 풍기대, 풍속계, 풍향계를 하나의 빨대에 끼워 만드는 교구재로,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집중하는



터치테이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야외로 나가 직접 제작한 풍향풍속계를 테스트할 때면, 바람에 돌아가는 풍속계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기상관측 팝업북, 천리안 위성 모형, 북극곰과 빙하, 번개와 낙뢰 등 다양한 기상기후과학 교구재를 활용한다.

### 기상예보의 시작, 관측장소 견학

관측장소에는 구름, 바람, 온도, 습도, 비, 지진 등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다양한 장비가 설치되어있다. 처음 장비만을 보면 어려워하다가도, 백엽상이나 양부일구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어느새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진다. 특히 바다에서 건져 올려 전시한 해양기상부이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집중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일등 공신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대가 다소 높은 곳에 있다. 이는 주변의 시설이 기상관측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인데, 덕분에 관측장소에서 내려다본 광주 시내는 주변 경관과 함께 꽤 멋진 풍경을 보여준다. 특히 노을이 질 무렵이면 마천루 사이로 지는 해도 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 소통하는 기상기후과학 교육

체험과 견학에 이어, 이제 기상청 주요 업무인 관측과 예보과정에 대해 배울 차례이다.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한다. 그래서 교육자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이나 사진, 퀴즈를 활용해 만들고, 초등·중등·고등·일반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한다. 그 외 자연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등 안전을 지키는 방법도 교육한다.

### 새롭게 단장한 기상홍보관, 하루빨리 복적이길

새롭게 단장한 기상홍보관에서 견학을 맞이할 생각에 설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견학을 맞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많은 청소년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다. 새롭게 단장을 끝낸 홍보관도, 기상과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주고 싶다. 나의 기상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광주지방기상청 홍보관



지하강당에서 교육 중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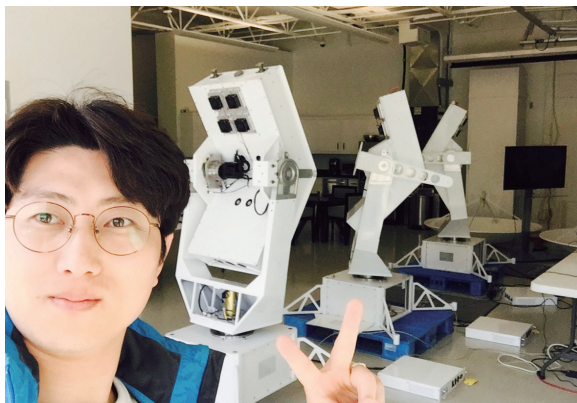
# 내 삶에 불현듯 찾아온 소형기상레이더

박진우 기상레이더센터

‘밤새 아픈 곳은 없었니? 오늘 하루도 잘 지내보자!’ 매일 아침, 나는 레이더 모니터링 표출시스템에게 인사를 건넨다. 소형기상레이더 관련 업무를 맡은 지 4년이 흘렀다. 그동안 평범했던 내 일생에 크고 작은 추억을 만들어준 소형기상레이더와의 시간을 전하려 한다.

## 기상레이더, 너에게 한 뼘 더

레이더분석과 일원이 되고 난 뒤 얼마 후, 연구성과 발표회장에서 본 내 눈앞의 직원들은 모두 기상레이더 전문가였다. 나도 이들과처럼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남들보다 기상레이더 관련 업무 지식도 부족했고, 그로 인한 자신감도 바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형기상레이더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나에게도 기상레이더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왔다. 교육은 미국에서 진행됐고, 레이더 실물을 보며 작동원리부터 운영상 비결, 장애 대응까지 3주 동안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솔직히 교육을 받는 동안 영어 울렁증과 생소한 레이더 전자회로 용어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육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실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귀소본능이 훅! 훅! 올라왔을 것이다.



## 무심한 날씨 속의 레이더 이전사업

소형기상레이더 관측망은 대형기상레이더의 저층 관측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017년 1차 설치지점에서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현재 수도권 집중관측 지점으로 이전하였다. 이전사업 당시 설치지점 타당성 연구가 꼼꼼하게 진행되었고, 그렇게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설치가 녹록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도 모두의 노력으로 설치작업이 시작되



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대로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다. 하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옥외에서 제한된 작업시간 및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특히 섬에 레이더를 설치하는 시기에 태풍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섬에 갇혀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이전사업 마무리되었고, 나는 겨울이 돼서야 검게 탔던 나의 뽀얀 피부색을 되찾을 수 있었다.

### 소형기상레이더가 주는 기쁨

나는 예상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장난꾸러기 소형기상레이더는 가끔 나에게 장비 장애라는 깜짝 이벤트를 선물한다. 그렇다고 무생물 레이더를 미워할 순 없다. 그럼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장애를 유발하여 책에 없는 내용을 나에게 학습을 시켜 주는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장애를 해결했을 때 그 쾌감은 의사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을 때와 같을 것이다. 레이더 제작사의 도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도 장애 해결의 지분은 있겠지? 또 하나 기분 좋았던 일은 이전사업 직후 겨울이었다. 오전 예보 토의 때 대형기상레이더 영역에서 보이지 않던 강설예고가 소형기상레이더에 보였다는 것이다. 출근 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여름 그렇게 고생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일이겠지만, 평범한 내 삶에서 가끔씩 있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입사 초 바라보았던 과 구성원들처럼 기상레이더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 믿는다.





## 이번 여름엔 무슨 옷을 입지?

강 희 정 국가기상위성센터

지난 5월, 기상청은 장기에보에서 올여름은 평년이나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될 것이며, 이상고온 현상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옷이라도 시원하게 입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름옷을 사기 전에 했던 고민을 몇 가지 담아보았습니다.

###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을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옷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생각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안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데, 다들 한두 번씩은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 옷을 만져보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얇은 옷을 사게 되거나 여름에 두꺼운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름철에는 어떤 소재의 옷을 사는 게 좋을까요? 검색해보니 린넨이나 텐셀 소재의 옷이 흡습성이 좋아 여름에 입기 좋다고 하네요. 그러나 소재별로 단점도 있고, 세탁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재              | 원료             | 장점                                | 단점                                | 세탁 시 주의점                                                     |
|-----------------|----------------|-----------------------------------|-----------------------------------|--------------------------------------------------------------|
| 린넨<br>(Linen)   | 마              | 땀 흡수가 잘 됨<br>바람이 잘 통함             | 뽀뽀하고 구김이 잘 생김<br>(면과 혼방하여 단점을 보완) |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기나<br>다림질 사용 시 주의 필요<br>섬유유연제 사용 시 보풀이 발생할 수 있음 |
| 텐셀*<br>(Tencel) | 유칼립투스나무<br>추출물 | 땀 흡수가 잘 됨<br>섬유구조가 매끄러워<br>자극이 적음 | 내구성이 떨어짐                          | 산소계 표백제에 약함<br>삶으면 변형되기 쉬움                                   |

\* 라이오셀(Lyocell)의 한 종류를 텐셀이라고 함



## 매일의 날씨와 옷을 함께 기록해보자!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름옷을 샀다면, 과연 이 옷을 언제부터 입으면 좋을까요?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추위를 느끼는 사람은 여름옷을 늦게 입겠고, 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여름옷을 일찍 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 대비해서 우비와 장화를 미리 챙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만화가 천계영은 이렇게 날씨와 환경에 따라 각자 선호하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옷과 함께 그날의 날씨를 기록하는 '코디노트' 작성을 추천했습니다. 날씨와 코디를 함께 기록해두면, 다음에 비슷한 날씨일 때 그날의 코디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지난 6월부터 매일의 날씨와 옷을 일부 기록해보았습니다. 날씨는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위치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한 온도와 습도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니, 내년 이맘때쯤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도 꽤 덥겠지만, 시원한 옷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거든 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2020년,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온도 22.9℃ / 습도 48% / 체감온도 23℃

폴리에스터 100%의 원피스를 입었는데,  
사무실에서 크게 덥거나 좁지 않았음.

내년 6월에도 폴리에스터 100%의 옷을 입어도 좋겠음

<6월 2일> 온도 20.7℃ / 습도 44% / 체감온도 20.5℃

모직 바지와 긴소매 셔츠(폴리에스터 100%)를 입었는데,  
적당하게 시원했음

<6월 5일>

온도 26.7℃ / 습도 63% / 체감온도 27.27℃ / 밤에는 비도 옴

모직 바지와 긴소매 셔츠(역시 폴리에스터 100%)를  
입었는데, 상당히 더웠음.

위성센터 직원분들 중에는 100% 면으로 이뤄진

반소매 티를 입은 직원들이 많았는데, 상쾌해 보여 부러웠음



인천기상대에서 관측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기상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나에게 항상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과거의 인천기상대의 모습과 100년이라는 세월을 담고 있는 터줏대감들을 소개하고, 과거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관측자의 마음가짐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116년 역사 인천기상대, 나의 기록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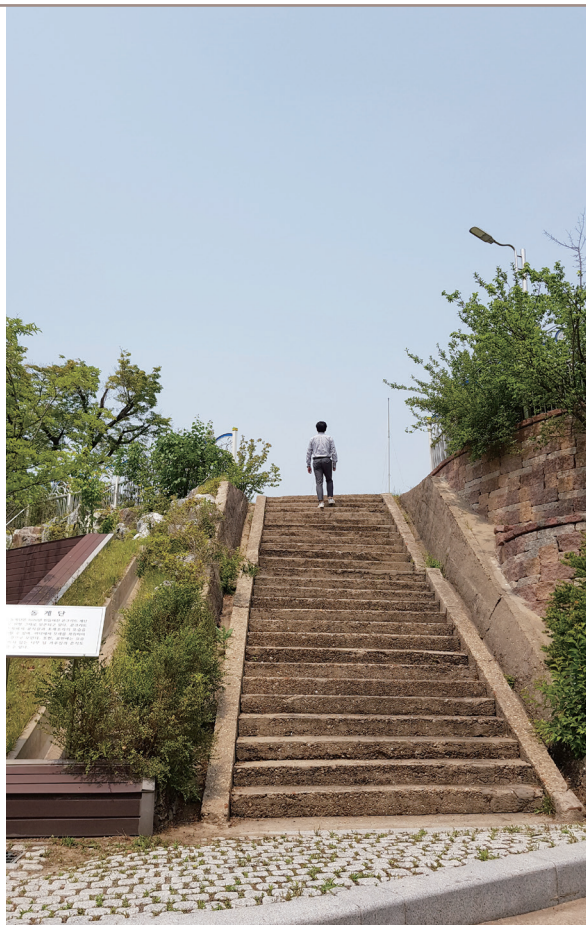
윤연상 인천기상대

###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관측소 인천기상대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은 1883년(고종 20년)에 부산(8. 12.)과 인천(9. 1.) 해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천 해관의 기상관측은 근대적이지 못했다.

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기상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4년 4월, 지금의 자유공원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관측소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당시 한반도의 모든 기상정보는 인천관측소로 모여 일괄 관리되었고, 일기예보도 인천에서 발표했으며, 외국과의 기상정보교환도 인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한반도의 기상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

또한,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천문관측시설까지 있어서 국내 최초로 혜성을 관측하는가 하면, 매일 정오에 포를 쏘 관측소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현재의 인천기상대는 과거보다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천의 하늘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나와 동료들이 그 기록을 더 하고 있다.



### 인천기상대의 터줏대감 건물과 돌계단

현재 인천기상대에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상대를 지켜온 두 가지의 구조물이 있다. 먼저 1923년에 준공된 건물이 그렇다. 당시에는 창고로 쓰였지만, 현재는 내부를 증·개축하여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기상대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 작전 중 함포사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 건물만은 여전히 기상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 외벽에 전쟁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어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1928년에 관측실 신축 공사와 함께 축조된 돌계단이다. 이 계단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만들어진 콘크리트조 계단으로 원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관측장소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면 과거의 수많은 관측자가 관측하기 위해 분주하게 오르내렸을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 역사 기록에서 느낀 관측자의 마음가짐



1923년 네덜란드식 건축물인 인천기상대 역사관

「지상기상관측 지침」 중 관측자의 태도에는 ‘기상현상은 두 번 반복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상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관측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3년 동안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문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무에 임했다. 관측자의 실수로 인해 기록하지 못한 기상현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후대에 잘못된 정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관측자들 또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쟁 기간에도 많은 관측기록을 남겼고 여전히 잘 보존된 것이 아닐까? 1950년 9월 서울의 관측 기록을 살펴보면 ‘14시 이후 노장우측 200m지점 화재와 교전 因하여 관측 불능’이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교전 전까지의 관측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총성이 오고 가는 전쟁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후대에 관측기록을 남기려 했던 관측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정신을 본받아 오늘날 관측자들은 정확한 기상관측을 기록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116년간 이어져 내려온 인천날씨의 역사서에 나의 기록을 더 해나가고 있다.

## 인천기상대를 그린 벽화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국가태풍센터 현장 점검(6월 2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가태풍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김 청장은 올해 개선된 태풍정보가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2020년 강원 고성산불 대응기관 격려금 전수식(6월 5일)



강원지방기상청은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5월 1일) 진화에 15개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격려금을 전달받았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6월 3일)



기상청은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였다.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백령도 기상시설 현장 점검(6월 9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백령도 기상관측소와 레이더관측소를 방문하여 운영 상태를 점검하였다.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김종석 청장,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6월 17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후변화 전문 교육과정인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에 초청받아, '기후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 국립기상과학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업무협약식(6월 18일)



국립기상과학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과 함께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관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국가지진계검정센터 개소식(6월 18일)



국가지진계검정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천안에 설립한 국가지진계검정센터는 올해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지진관측장비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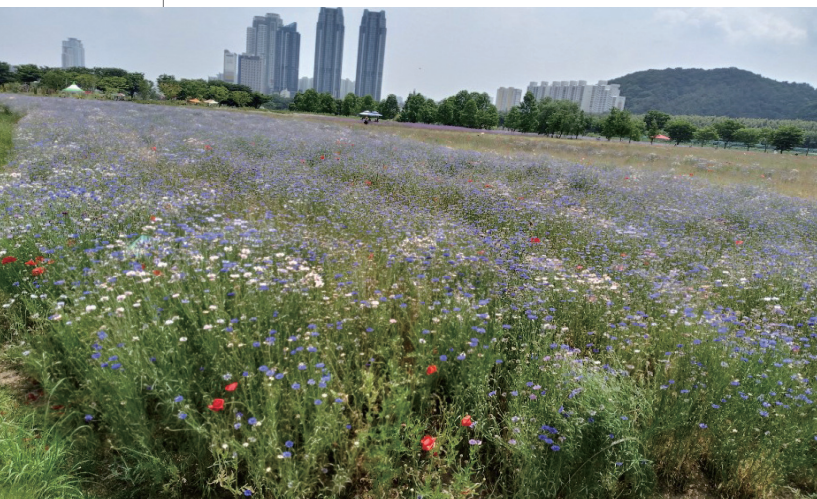
### 한국기상전문인협회 독자 사무실 입주(6월 26일)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회장 이현)는 창립 20여 년 만에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에 독자(獨自) 사무실을 마련하여 입주하였다.

📷 **항득규**

울산 태화강 일대의 국가정원에서 잘 피어오른 라벤더와 양귀비를 감상했습니다.



📷 **오은경**

부산 범어사 절에 핀 꽃이 너무도 아름답네요. 화창한 날씨처럼 들녘에는 예쁜 꽃이 절정에이르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쁜 풍경을 마음껏 누리며, 길을 걷고 싶네요.

📷 **김은미**

어느덧 들판이 모들로 한가득해졌네요. 올해는 더욱 풍년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7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최은순**

산책길에 예쁘게 핀 클로버 꽃. 그동안 너무 가까이  
이제 있기에 자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데 잠시  
만 눈을 돌아보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우  
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 **최영지**

맑디맑은 호수 속에 귀여운 오리 세 마리가 나란히  
헤엄치며, 무더위도 피하고 여유 있게 보내는 모습  
이 참 아름답네요.

📷 **김찬욱**

제주도로 몰려드는 바다 안개



📷 **한재경**

아침 출근길에 본 하늘입니다. 매일 오가는 길이지만 이날만  
크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 해를 피하면 시원한 행복 (해피)이 찾아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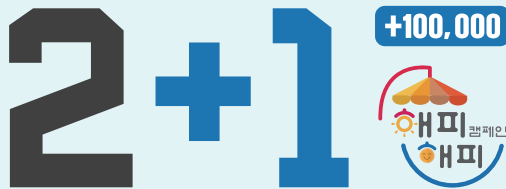


폭염에 좋은 '물·그늘·휴식'

올여름 폭염이 심상치 않다고 하죠? 이렇게 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는 모두가 '해(태양)를 피하면 시원한 행복(해피)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은 '해피해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페인은 폭염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알리고, 폭염취약계층을 위한 '해피수 나눔(생수 나눔)' 이벤트, '물 마시기 습관을 위한 해피수 챌린지' 등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피해피 캠페인으로 올여름 나눔의 기쁨과 건강, 두 가지 모두 챙겨보세요!

## 해피수 나눔

폭염엔 해피수로 너도나도 함께 해피!



With

기상청 GS25농심백산수밥상공동체연탄은행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해피수 챌린지

폭염 예방을 위한 물 자주 마시기 챌린지!

#해피수챌린지 #폭염피해예방 #해피해피캠페인 #기상청



### STEP 1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백산수 2+1 상품 구입

### STEP 2



+1 증정품을 GS25  
'나만의 냉장고' 앱에 저장하기!

※ 이벤트 참여 전 '나만의 냉장고' 앱을 설치해주세요.

### STEP 3



'나만의 냉장고'에서 저장된 상품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기

※ 기부 보낼 곳 010-2307-7842

### STEP 1

폭염 피해예방 수칙 중 하나인  
물 자주 마시기

### STE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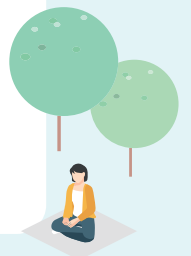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물 마시기' 관련 사진과 고정 해시태그 후 게재

f @kmaskylove i @happysoo\_challenge

### STEP 3

해피수 챌린지 참여 시  
다음 사람 태그하기

※ 친구에게 태그 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 덜어요



정을 닦아요, 음식은 덜어요

함께 바뀌요! 건강한 식문화

⚠️ 큰 비가  
예상됩니다

⚠️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실시간 날씨알리미 앱

위험기상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으로!  
더 빠르게 안전해집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 기반한  
위험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



## 📶 지진

- ☑️ 규모 4.0(해역 4.5 이상): 모든 사용자
- ☑️ 규모 3.0(해역 3.5 이상): 지진 발생지 50~80km 이내 사용자

## 🔥 기상특보

- ☑️ 호우, 태풍, 대설, 지진해일, 폭풍해일:  
해당 지역의 사용자

※ 예보관이 필요에 따라 기상 긴급알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다양하게 앱 활용

### 알림 항목 추가



**특보**  
(건조, 폭염, 강풍, 풍랑, 한파 등)



날씨예보



바다예보

### 원하는 대로 설정



관심지역 설정



알람시간 선택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내려받고,  
**위험기상에 빠르게 대비하여 나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